



## 델타변이와 펀드플로우

### 1. 백신 접종율이 낮은 아시아주식펀드는 자금 유출

-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율이 낮은 아시아에 투자하는 주식(일본제외)펀드와 ETF는 5월 이후부터 자금 유출
-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던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도 5월 이후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

### 2. 선진국펀드도 델타 변이에 발목

- 델타변이 확산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6월 마지막주에는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출 전환
- 델타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도 6월 중순 이후부터 감소
-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채권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 증가

### 3. 신흥국 펀드 안에서 대만 비중 증가

-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의 투자 비중은 10.2%로 연초 이후 큰 변화가 없음
- 상반기 5개월 동안 신흥국 펀드 안에서 대만의 비중은 9.6%에서 10.8%로 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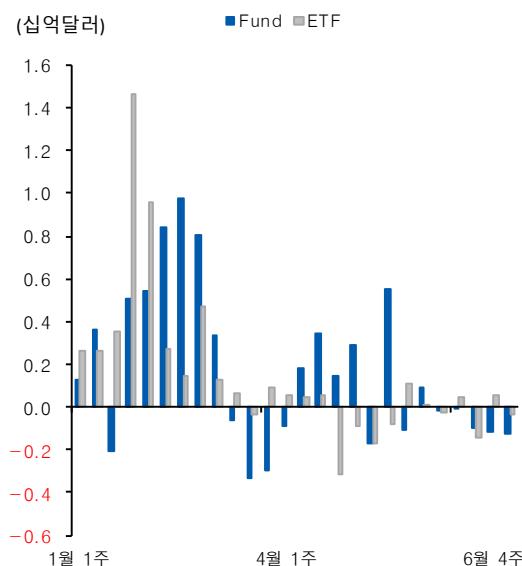
## 1. 백신 접종율이 낮은 아시아주식펀드는 자금 유출

델타변이와 코로나백신의 국가별 차별화가 글로벌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어있던 우리나라와 대만도 유행이 확대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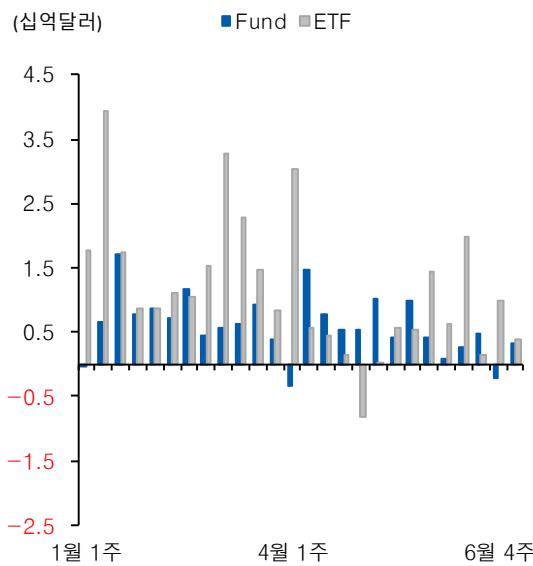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율이 낮은 아시아주식(일본제외)펀드와 ETF는 5월 이후부터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코로나백신 접종율은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격차가 꽤 큰 상황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2차 접종율은 51%와 48%이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10.7%, 말레이시아 9.5%, 인도네시아 5.3%, 인도 4.9%). 델타변이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우려가 자금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던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도 5월 이후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6월 중순 이후로는 신흥국주식ETF의 자금 유입 규모도 감소하였다. 신흥국과 아시아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챠트1]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5월부터 자금 유출



[챠트2] 신흥국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규모 감소 추세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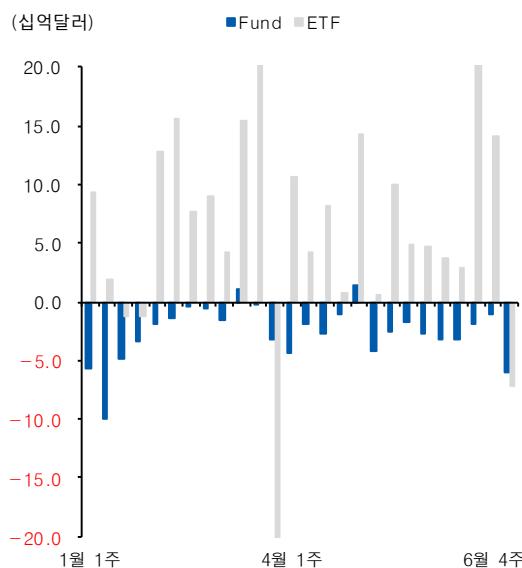
## 2. 선진국펀드도 델타 변이에 발목

선진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다. 미국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주식ETF는 자금 유입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델타변이 확산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6월 마지막주에는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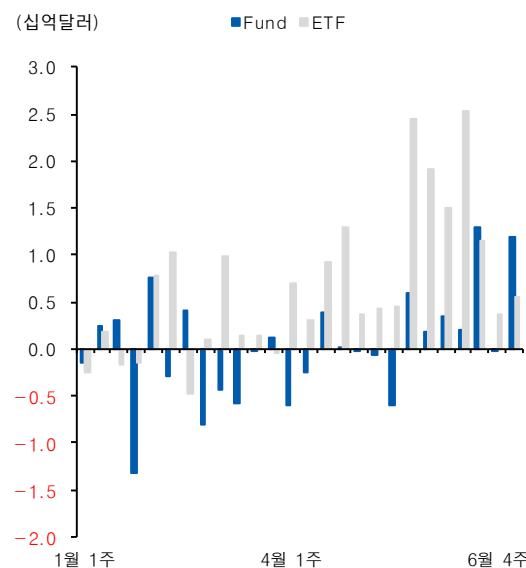
유럽 각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유럽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도 6월 중순 이후부터 감소하였다.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휴가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것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채권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커졌다. 주간 미국 채권펀드와 ETF의 자금 유입규모는 4월 119억달러, 5월 70억달러, 6월 85억달러였다. 7월 첫번째주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채권펀드와 ETF의 주간 유입규모가 138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이는 2월 둘째주 이후 최대 유입 규모이다. 유럽채권펀드의 유입 규모도 6월 평균 주간 유입규모가 18억달러였으나, 7월 첫번째주에는 20.6억달러로 늘어났다.

[차트3]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자금 유입 추세



[차트4] 유럽주식펀드와 ETF는 4월부터 자금 유입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 3. 신흥국 펀드 안에서 대만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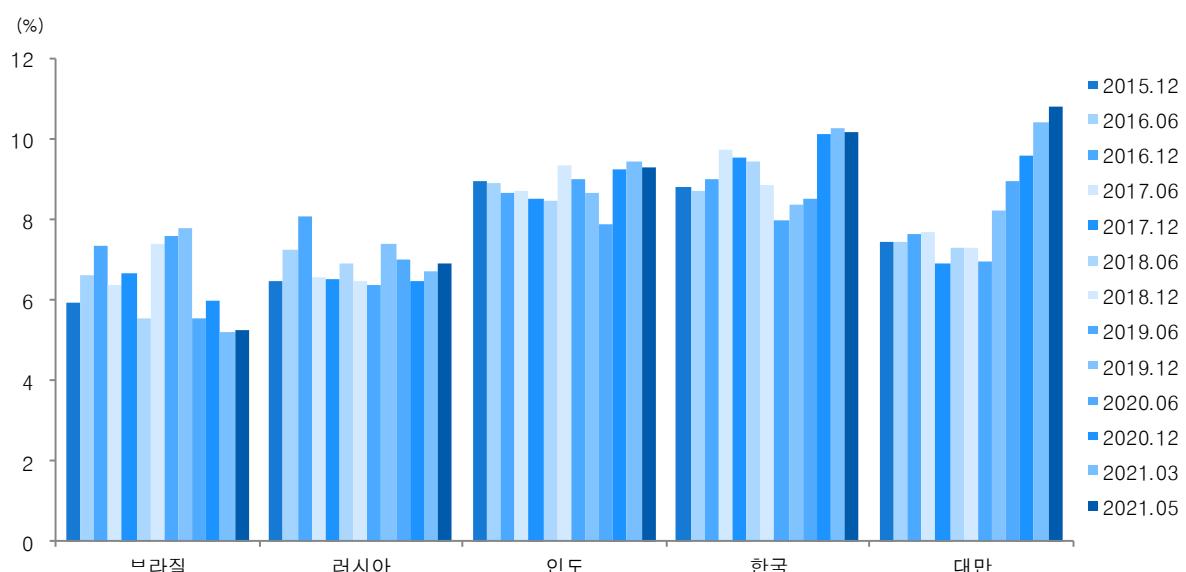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의 투자 비중은 연초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작년 4분기에는 한국 투자 비중(평균)이 8.5%에서 10.1%로 크게 높아졌으나, 2021년 5개월 동안은 투자 비중이 0.1% 늘어난 데 그쳤다.

상반기 5개월 동안 신흥국 펀드 안에서 대만의 비중은 9.6%에서 10.8%로 1.2%가 늘어났다. 2020년 이후 대만의 투자 비중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6년 7.3%였던 브라질의 투자 비중은 5.2%까지 떨어졌고, 러시아의 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8.1%에서 6.9%로 내려갔다. 신흥국 중에서는 자원 부국 보다는 제조업에 경쟁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펀드 투자는 투자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증가는 가능성성이 낮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 상황에서 멜타 변이의 확산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확산 상황이 진정되면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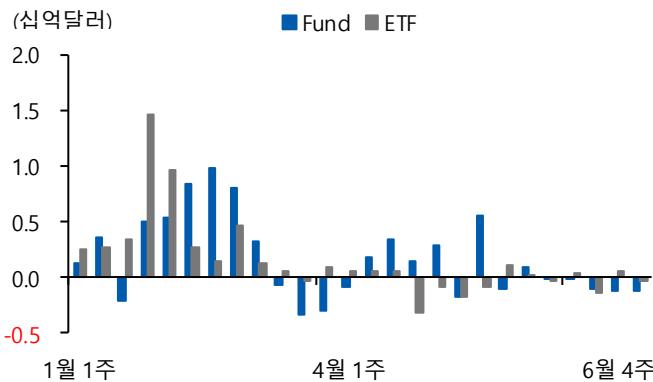
[차트4] 글로벌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주춤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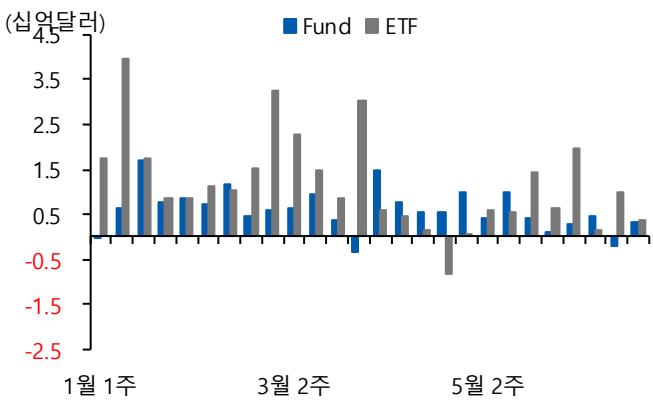
## Key Chart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5월부터 자금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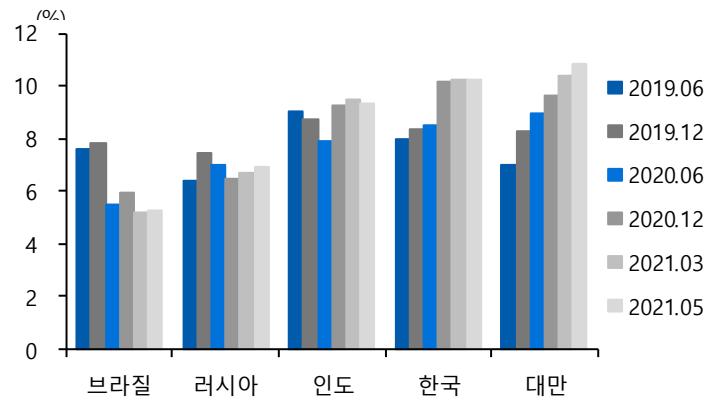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주식펀드와 ETF는 자금 유입규모 감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펀드 안에서 국가별 비중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